

광주 교통혼잡지 풍암교차로·백운광장 지하차도 추진

풍암교차로, 풍암동~유통단지 300억 투입 800m 왕복 4차로 백운광장, 조선대~농성광장 '양방향' 945m 2024년 완공 예정

광주 대표 교통 혼잡지역으로 꼽히는 풍암교차로와 백운광장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광주시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두 지역에서 지하차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이후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풍암교차로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과 매월동을 잇는 지점으로, 인근에 제2순환도로 출입구와 풍암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 매월동 종합유통단지 등이 몰려있어 상습적으로 정체 현상을 빚어 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곳에는 시비 300억원을 투입해 길이 800m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만들 계획이다.

2주 안팎으로 용역 모집을 마친 뒤 설계 용역에 착수해 1년 6개월동안 기초조사 및 설계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준공은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됐다.

'일방향 도로'로 추진돼 시민 반발에 부딪혀 주춤

했던 광주시 남구 백운동 백운지하차도 건설 사업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하차도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로 바꾸는 설계 변경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백운광장 역시 농성동, 백운동, 금남로, 봉선동, 나주 등으로 향하는 차량이 몰려드는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조선대와 농성광장을 잇는 길이 945m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대남대로 앞 선형개량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백운지하차도는 백운고가 철거 작업이 끝나기 5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착공했다. 이 사업에는 고가도로 철거와 지하차도 건설을 합쳐 588억원(국비 136억원, 시비 4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백운지하차도 건설 시 조선대-농성광장 간 통행시간이 11분대에서 6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지하차도는 당초 조선대~농성광장 방향 '일방향 도로'로 계획됐으나, 시민들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10월 '양방향 도로'로 설계 변경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방재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돼 환기 팬, 비상 탈출대피로, 폭우 대비 차단시설 등을 새로 설계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백운지하차도의 현재 공정률은 30% 안팎이며 오는 2024년 2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한편 백운광장 인근의 일부 상인들에게서는 지하차도 건설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 남구청에서는 지난 5일 100여명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백운지하차도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은 백운동이 상습 침수지역이라 사고 우려가 큰데다 주변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백운광장의 교통 흐름이 원활한 편이라며 지하차도 설치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 남구청 관계자는 "지하차도 인근 상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교통량 개선 효과와 고가도로 당시 사고 다발로 인한 위험 요소 제거 차원에서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 시착한 사업이라 큰 틀에서 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대표 교통 혼잡 지역으로 꼽히는 광주시 남구 백운동 백운교차로. 이곳에서는 현재 조선대와 농성광장을 잇는 백운지하차도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골프장 사망사고 '중대시민재해' 해당될까

경찰, 적용 여부 놓고 수사 장기화...사업본부장·캐디 등 입건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광주일보 2022년 4월 28일자 6면)과 관련 경찰 수사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2명을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께 골프존 카운티CC 순천에서 골프를 치던 여성(53)이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다.

골프존카운티CC 순천의 40대 남성 사업본부

장 A씨와 40대 여성 경기보조자(캐디) B씨는 각각 4월, 6월 입건됐다.

이들은 시설물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경기 도중 이용객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용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이 사건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발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인명 피해를 낸 사고를 말한다.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 또는 경영책

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고 관련 형사 책임을 사업자에게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올 1월 시행된 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선례가 아직 없어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복수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문의한 결과 기관마다 다른 견해를 낸 것도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기 위해선 ▲공중이용 시설에서 ▲관리상 결함 등으로 재해가 일어나야 하며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경찰이 유권 해석을 의뢰한 기관에선 '회원제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조차 의견이 갈랐다'는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서 올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

어패류 익혀먹기·피부에 바닷물 접촉 주의 등 당부

전남도가 최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올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건강화기저질환을 가진 영광군 거주 첫 사망자(63)는 지난달 27일 바다새우를 생식으로 섭취한 뒤, 다음날 구토와 손발 저림 증상으로 관내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7월 29일 사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섭씨 18도 이상 상승하는 8-9월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나온다. 주요 감염 원인은 어패류 섭취, 피부 상처와 바닷물의 접촉 등이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 저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전남에선 지난 2월 21일 영광군 해수에서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됐다. 전남에서 해수와 갯벌에서 지속해서 균이 검출되고 있어 당분간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지속될 전망이다.

문권옥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반드시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잘 씻어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간질환 등 고위험군은 바닷물 입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소년 알바 안심사업장 모집합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31일까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청소년 알바 안심사업장'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알바 안심사업장은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 등을 충족해야 하고 현장 조사·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최근 2년 이내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과 주류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장, 대형회사 프랜차이즈 직영사업장,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된 사업장에는 청소년 알바 안심사업장 인증 현판 부착, 인사노무 컨설팅,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업장 홍보도 제공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산소방, 광주 첫 소방종합훈련장 준공

월전동 1970㎡ 규모

광주광산소방이 광주시 최초로 '소방종합훈련장'을 준공했다.

광주광산소방은 광산구 월전동 평동119안전센터 인근에 1970㎡ 규모의 소방종합훈련장을 준공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7일 밝혔다.

훈련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교육과 훈련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장 내부에는 홍보 조형물 설치와 함께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휴게 부스·음수대 등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됐다.

훈련장은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소방

훈련 및 체력단련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훈련 장소로 활용된다. 현재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를 위한 훈련장으로 이용중이다.

송성훈 광산소방서장은 "소방종합훈련장에선 각종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 비상상황 탈출훈련, 소방공무원 체력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서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통해 광주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화지점

